

금호타이어·우리은행...3조원대 M&A 큰 장 선다

금호타이어 내일 공고...1조원대 매각 대금 조달 관건

우리銀 23일 인수인양서 접수...보험·증권사 등 관심

추석 연휴가 끝난 이번 주부터 업계에서 2건의 대형 인수·합병(M&A)이 잇달아 올린다. 20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6년 만에 금호타이어 새 주인 찾아주기에 시동을 거는가하면 23일부터는 2001년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 자본 매각 작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각 1조와 2조3000억원의 초대형 거래다.

◇금호타이어 20일 공고, 매각 성사·총액 3000억~6000억 원도 크지 않다. 이번 주부터 업계에서 2건의 대형 인수·합병(M&A)이 잇달아 올린다. 20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6년 만에 금호타이어 새 주인 찾아주기에 시동을 거는가하면 23일부터는 2001년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 자본 매각 작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각 1조와 2조3000억원의 초대형 거래다.

주력 계열사인 금호타이어는 오는 20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M&A 시장에 나온다. 주채권은행인 산은 등 채권단 보유 지분 42.1%를 매각하는 거래다. 공개경쟁 입찰방식이지만 일반적인 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옛 대주주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아들인 박세창 사장에게 '우선 매수청구권'이 있어서다. 입찰 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을 박 회장 부자

가 부담하면 금호타이어를 되찾을 수 있다.

채권단 입장에서 우선매수권은 흥행과 매각 성사 측면에서 '딜레마' 요소다. 유력한 우선매수권자가 존재해 최종적으로 금호타이어 매각에 성공할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흥행엔 제약 요인이다. 우선매수권 탓에 다른 인수 후보들이 적극적인 인수 의지를 보일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자문사 수수료를 포함한 실사 비용 전액을 보전기로 한 것도 '흥행' 유도를 위한 교육책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인수로 그룹 재건의 마지막 퍼즐을 끼우려는 박 회장의 전략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가장 큰 변수는 박 회장의 자금 조달력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금호산업 인수로 막대한 차입 부담을 지고 있고 보유 재산도 많지 않은 상태다. 금호타이어 주가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주당 1만9500원 수준이다. 채권단 보유 지분 가치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자본 30% 쪼개 팔기 시동, 23일 인수인양서 접수=우리은행은 시가총액 7조5712억원(13일 종가 기준)에 달하는 매머드급 정부 소유 은행이다. 지난 2001년 공적자금 투입 후 2010년부

터 민영화 위해 4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이번이 '4전5기' 도전인 셈이다.

거래는 23일 인수인양서(LOI)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정부 보유지분 48.09% 중 30%가 매각 대상이다. 4~8곳의 과점주들에게 4~8%씩 쪼개 파는 방식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각 투자자들이 희망한 물량을 배정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망은 밝다. 정부는 자신감에 차 있다. 우리은행 자본 매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매입 지분이 4~8%여서 인수자 입장에서 경영권 매각 밀보다 지금부

담(3000억~6000억 원)도 크지 않다. 이번 주부터 업계에서 2건의 대형 인수·합병(M&A)이 잇달아 올린다. 20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6년 만에 금호타이어 새 주인 찾아주기에 시동을 거는가하면 23일부터는 2001년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 자본 매각 작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각 1조와 2조3000억원의 초대형 거래다.

◇금호타이어 20일 공고, 매각 성사·총액 3000억~6000억 원도 크지 않다. 이번 주부터 업계에서 2건의 대형 인수·합병(M&A)이 잇달아 올린다. 20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6년 만에 금호타이어 새 주인 찾아주기에 시동을 거는가하면 23일부터는 2001년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 자본 매각 작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각 1조와 2조3000억원의 초대형 거래다.

광주·전남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年 200건

5년간 광주 295건·전남 828건...과태료 88억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최근 5년간 다수 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거짓) 신고한 건수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건수는 광주 295건, 전남 828건 등 모두 1123건에 달했다. 한 해 평균 200건 이상 벌을 어긴 부동산 거래가 적발된 셈이다.

이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만도 광주가 28억6000만원, 전남은 59억5000만원 등

88억1000만원이나 됐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14년 76건을 최고로 지난해는 67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올 상반기에만 70건에 달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남은 2014년 214건, 지난해 197건, 올 상반기 112건 등 다소 줄거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광주가 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다분계약이 78건, 이와 반대인 업계 약 15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미신고나 자료 미제출, 자연신고, 허위자료 작성 등이다.

전남은 141건이 다분계약, 64건이 업계 약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거래에서 업·다운 계약이 근절되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3852건이었으며 부과한 과태료는 933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다분계약 거짓신고가 1352건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으며 업계약이 1125건 8.1%로 집계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 운암동 '희망공부방' 18호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지난 12일 오후 광주시 운암동에 위치한 주택에서 '희망의 공부방 18호 선정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8호 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이모(16세)군은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결손 가정의 청소년으로, 책상은 물론 공부방마저 없어서 가정에서 학습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었다.

광주은행은 창고로 쓰던 곳을 깨끗이 정리해 책대와 서랍장을 놓아주고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을 놓아 공부방으로 꾸며 주었다.

광주은행 지역사회봉사단 직원들은 과일과 추석차례용품을 직접 선물했으며, 광주은행 강인식 부행장은 "공부방 선물이 고맙다는 이모군의 편지를 통해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LED 봉지재 초고속 경화기술 세계 최초 개발

한국광기술원, 10초 이내 단축 생산수율 획기적 향상

고출력 LED에 사용되는 실리콘 봉지재를 순간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LED 효율을 향상시키는 획기적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영선)은 최근 LED용 실리콘 내부에 혼합된 형광체를 가열, 실리콘 봉지재를 경화시키는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한 실리콘 봉지재 초고속 stress free 경화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LED칩을 보호하고 발광효율을 향상시키는 LED용 실리콘 봉지재는 그동안 실리콘과 형광체를 혼합하여 오븐에서 열로

경화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열 경화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형광체의 침전이 발생하여 동일한 LED라고 하더라도 광 특성이 바뀌고 생산수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한국광기술원 조명모듈연구센터 김재필 박사팀이 이번에 개발한 실리콘 봉지재 고속경화기술은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 경화시간을 10초 이내로 단축하고 형광체의 침전을 방지함으로써 LED 생산 수율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보험료 또 들썩

보장성, 5~10% 오를듯

주요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료 인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이 10월부터 현재 평균 2.75% 수준인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안팎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정이율에 맞춰 보험료 환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고객의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낮추면 보험료는 5~10%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갤럭시노트7' 오늘부터 교환 내년 3월까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이 19일부터 각 이동통신사 매장 등에서 교환된다. 개통 순서대로 날짜를 정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번거로움을 줄이려면 매장 방문 전 재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10월 이후 내년 3월까지 교환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등 이동통신사들과 별도의 교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9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갤럭시노트7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줄 예정이다.

갤럭시노트7 구매 고객은 기존 단말이 파손됐거나 충전기나 포장 박스 없이 분체만 가져가도 추가 비용 없이 동일한 색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

/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	12	29	34	36	37	41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233,770,358				1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77,805,338				37	
3	5개 숫자 일치	1,619,122				1,778	
4	4개 숫자 일치	50,000				88,260	
5	3개 숫자 일치	5,000				1,505,233	

2016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 2016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바, 법인이 보유한 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9월 19일
(재)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지원 목적 및 내용

- ▶(목적) 법인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 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 ▶(내용) ○ (주관기관형 공동활용 지원)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연구 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휴·폐업 또는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이내 (최대 3~5천만원)	30% 이상 (현금)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60% 이내 (최대 3~5천만원)	40% 이상 (현금)

* 정부지원금 한도(최대 3천만원)를 모두 사용한 참여기업에서 추가지원 요청 시 관리기관 승인 하에 최대 2천만원 추가 지원

▶바우처 구매

- 장비이용을 위한 바우처는 정부지원금(최대 3~5천만원)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예산소진 시까지 구매 가능
 - 구매한 바우처를 모두 사용완료 후, 추가 필요시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및 구매 가능
 - 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용기간(최대 60일)내에 사용하지 않아 50%이상 바우처를 환불한 경우 사업기간 내에 재구매 불가*
 - * 단,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재구매 허용

신청 방법

- ▶신청양식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공고 홈페이지(www.smtech.go.kr)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6. 1월 ~ 예산 소진 시 까지(수시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접수(http://www.smtech.go.kr)
- ▶문의처

접수문의	접 수 처
담당기관	(재)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재)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209호
담당자	노기평 선임연구원
	TEL) 062-602-7292
	FAX) 062-602-7064
	E-mail) shrivud1@gitp.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itp.or.kr) 공지사항 참고